

서울시 파크골프장 신규 입지 선정 및 활성화 제안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미라클" 조입니다. 한국오라클 기업에서 부여한 공공데이터 활용 고령화 대비 공공 서비스 개선 프로젝트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건강수명 연장을 돕는 방안으로서 "서울시 파크골프장 신규 입지 선정과 활성화 방안"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안은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토대로,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이 보다 건강한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서울은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크골프장의 수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구는 신규 파크골프장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잦지만, 다른 구는 여건이나 수요가 부족하여 구별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77개소 신설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곳에 일률적으로 확충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파크골프를 둘러싼 부정적 시각(어린이 공간 축소, 세대 갈등, 소음 문제 등)도 존재하여, 단순히 수요만 고려한 확충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저희는 공공데이터 뿐 아니라 서울시 파크골프협회로부터 회원 데이터와 현황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에 반영하였고,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수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협회와 이용자들 모두 현재의 불균형 문제를 크게 체감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AHP(계층분석법)와 MCLP(최대입지커버모형)를 적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AHP는 설문조사를 통해 변수별 중요도를 도출하였고, MCLP는 한정된 수의 파크골프장을 어디에 설치해야 가장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를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성북구·강동구·강서구의 공원이 최적 후보지로 도출되었으며, 이 지역에 시설을 조성할 경우 평균 불균형 지수가 약 13%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분석 결과를 누구나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웹 기반 서비스 'Park-In'을 제작해보았습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구역별 불균형 지수와 수요·공급 현황을 시각화하여 보여주고, 최적 입지를 추천해주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데이터 분석을 잘 모르는 담당자라도 직관적으로 결과를 확인하고 정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관리자가 데이터 설정 및 방법론 조정, 분석 범위 확대·축소, 다양한 시뮬레이션 수행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확장하여, 파크골프 입지 선정에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안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각 구청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불균형이 심한 구를 우선 대상으로 신규 시설을 확충하는 단계적 전략, 청년·가족 친화 공간과 병행 가능한 근린공원·체육공원 중심 입지 활용, 그리고 주민과 협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참여형 운영 방안을 함께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은 가까운 생활권에서 파크골프를 즐기며 건강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본 제안은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확충을 지향합니다. 서울시가 이러한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면, 파크골프 정책은 시민 건강 증진과 사회적 갈등 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저희는 본 제안에서 제시한 방법론 자체가 유일한 답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더 나은 방식이 있다면 그것을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가 반드시 정착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단순히 “많이 짓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시민을 아우르는 효율적이고 공평한 파크골프장 조성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곧 시민들에게는 접근성 높은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행정에는 Park-In을 통한 데이터 기반 정책 관리 체계 확립을, 지역사회에는 균형 발전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서울시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